

선진국의 IP인재양성 실태를 통한 우리의 지식재산 인재상

[목차]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의 내용
 - 4. 연구의 기대효과
- II. 현황조사
 - 1. 세계의 지식재산교육 개요
 - 2. 미국의 지식재산교육
 - 3. 유럽의 지식재산교육
 - 4. 일본의 지식재산교육
 - 5. 한국의 지식재산교육
 - 6. 지식재산전문대학원
- III. 지식재산교육 비교분석
 - 1. 지식재산 교육 비교 분석 개요
 - 2. 지식재산 창출 교육 국제비교
 - 3. 지식재산 보호 교육 국제비교
 - 4. 지식재산 활용 교육 국제비교
 - 5. 지식재산 교육 종합 비교분석
- IV.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정책
- V. 결론

II. 현황조사

4. 일본 지식재산 교육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은 정부 주도로 시작된 점이 특징이다. 지식재산 입국이라는 국가적 목표아래 문부과학성의 지원으로 2002년 이후 많은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지식재산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로 지식재산 교육이 발전한 반면 일본도 단기간에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직 실무자들이 교수로 채용되어 과거의 경험을 전수하는 형태의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가. 도쿄대학

도쿄대학은 1877년 설립된 일본 최고의 명문 국립대로

풍부한 재정지원과 뛰어난 기자재, 방대한 소장도서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 2명¹⁾을 배출하였다. 학부생 14,471명, 석사 6,480명, 박사 6,188명이 재학 중이며, 5개의 캠퍼스와 10개의 학부, 15개 대학원, 11개의 연구소, 3개의 전문대학원(Law-School, MOT, 공공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도쿄대학 지식재산 교육의 연혁 및 특징

도쿄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은 2003년 문부과학성의 '신흥분야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사회인 대상의 세미나를 중심으로 하는 단기집중 프로그램인 지식창조 매니지먼트 전문직육성 코스를 도쿄대학 부속연구소인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²⁾에 개설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인 대상의 세미나를 축으로 한 단기집중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 진행되었으며, 문부과학성으로부터

터 연간 약 8,000만 엔을 지원받고 있다. 이런 첨단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6년 공과대학원 TMI(Technology Management for Innovation(기술경영전략전공))이 설치되었고, 지식재산 관련 과목도 포함되어 있다.

〈표 1〉 도쿄대학 기술 경영 전략 교과 내용

과목	내용
이노베이션과 지식재산	• 일본의 'National Innovation System'을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면서 해설하고, 그 중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나 기업 전략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함
지식재산경영	• 특허제도에서 기업이 이용 가능한 선택사항은 무엇이며, 최적의 선택을 위한 결정 프로세스는 무엇인지를 특허제도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습
기업가치와 지식재산	• 기술이 어떻게 해서 기업 가치에 공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다양한 지식재산과 기업 가치와의 관계, 지식재산에 기인하는 무형자산의 금전적 가치평가 수법을 통해서 이해
산학연계와 이노베이션	• 산학연계 매니지먼트의 의의와 특징을, 산학연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나 실무자 및 기업의 초청 강사에 의한 사례소개 등을 통해 이해

(2) 도쿄대학 지식재산 교수진

도쿄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은 기업 근무경험이 있는 와타나베 토시야 교수, 경제산업성 출신의 모토하시 가즈유키 교수와 이론적 부분을 보충할 세노오 겐이치로 특임교수 1명을 중심으로 기술경영전략학 전공에서 진행하고 있다.

(3) 도쿄대학 지식재산 교육 내용

기술경영전략학 전공은 과학기술과 경영, 경제를 융합한 새로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첨단 과학기술의 폭넓은 이해와 경영·경제학의 지식을 동시에 익힌 종합력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런 기술경영전략학 전공에는 '이노베이션과 지식재산', '지식재산경영', '기업가치와 지식재산', '산학연계와 이노베이션' 과 같은 지식재산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4) 도쿄대학 지식재산 학생 및 진로

기술경영전략학 전공은 연간 25명을 정원으로 모집하

고 있으며, 이중 국제유학생은 3-4명 정도였으나, 2008년부터는 문부과학성 장학금 지원에 따라 외국 유학생 정원을 10명으로 증대하여 총 3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학생의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이며, 2006년 전공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지는 못하였다.

(5) 도쿄대학 지식재산 교육의 시사점

일본의 경우 이미 5년 전에 지식재산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지식재산 관련 인식은 초기에 법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창출과 활용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이미 2~3개의 대학에서 지식재산 전문직 대학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있으며, 한국도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시아 국가 및 학교 간의 지식재산 교육의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 토호쿠대학

'연구 제일주의 전통', '문화개방'의 이념 및 '실학중'의 정신을 기초로 설립된 토호쿠 대학은 국립명문대로 5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타나카 코이치를 졸업생으로 배출한 공과대학이 유명하다. 학부생 10,815명, 대학원 석사 4,175명, 대학원 박사 2,870명이 재학 중이며, 10개의 학부, 15개의 일반대학원, 로스쿨, 공공정책 대학원, 회계대학원 등 3개의 전문직 대학원, 5개의 부속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1) 토호쿠대학 지식재산 교육의 연혁 및 특징

토호쿠 대학의 로스쿨은 2004년에 3년 과정으로 설립되었으며, 교원수는 53명, 입학정원은 학년 당 100명이다. 이중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으로 전개/첨단 과목군의 '지식재산법 I', '지식재산법 II'가 개설되어 있고, 2008년부터는 '국제지식재산법' 과목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1) 오에 겐자부로(문학), 고시바 마사토시(물리학)
 2) 과학기술에 관련된 선도적인 기초, 응용연구나 지식재산, 경제공학과 같은 새로운 학제간 영역분야 개척의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법학부에 ‘지식재산법’, ‘지식재산법연습 I, II, III’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2) 토호쿠대학 지식재산 교수진

지식재산 교육은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특허청에서 파견된 공학석사 출신의 히라츠카 마사히로 교수와 공업소유권법학회, 저작권법학회, 일본사법학회 소속의 아시다테 마사미 조교수가 전담하고 있다.

(3) 토호쿠대학 지식재산 교육 내용

로스쿨에서 지식재산법이 속한 전개/첨단 과목군은 선

〈표 2〉 토호쿠대학 지식재산 과목

과목	내용
지식재산법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목군 : 전개 / 첨단과목 담당교수 : 히라츠카 마사히로, 아시다테 마사미 수업연차 : 2, 3년 단위수 : 2단위 목적 : 특허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 습득 수업내용 : 1. 특허법의 개요(1) 2. 특허권의 발생(1~4) 1)발명 2)신규성 3)진보성 4)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3. 특허취득절차(5) 4. 특허권침해의 성립(6-10) 1)특허권 범위 2)균등론 3)명세서 4)권리도용 5)간접침해 6)병행수입 5. 피고의 항변(11) 6. 무효심판청구(11) 7. 권리침해효과(12) 8. 특허권 귀속(13) 1)발명자 2)직무발명 9. 특허권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문제 성적평가방법 : 정기시험성적(80%), 질의 및 토론점수(20%)
지식재산법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목군 : 전개 / 첨단과목 담당교수 : 아시다테 마사미 수업연차 : 2, 3년 단위수 : 2단위 목적 :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 습득 수업내용 : 1. 총론(1), 2. 저작물성(1~3), 1)사상, 또는 감정의 창조적 표현, 2)문예/학술/미술/음악의 범위, 3. 저작권침해(4), 4. 저작권침해2 : 저작권내용(5-8), 5. 저작권침해3 : 저작권제한(8-10) 6. 저작권침해4 : 침해의 주체, 침해의 효과(11) 7. 저작권인정/권리의 침해(12) 1)저작자/공동저작자 2)지무저자 3)영화 저작물에 관한 제한 8. 저작자인격권(13) 9. 권리의 존속기간(14) 10. 저작인접권(14) 성적평가방법 : 정기시험성적(80%), 질의 및 토론점수(20%)

택과목으로 2, 3년 차에 배울 수 있으며, 학생들이 주로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선택하고, 지식재산법 I 은 특허법을, 지식재산법 II는 저작권법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4) 토호쿠대학 지식재산 학생 및 진로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의 35% 정도가 사회인이며, 지식재산법 과목 수강생은 약 20여 명 정도로 대부분이 사법시험 준비생이다.

(5) 토호쿠대학 지식재산 교육의 시사점

토호쿠대학은 공대가 유명하고 TLO에 대한 활동도 활발하지만, 로스쿨과의 연계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에 지식재산 교육에 있어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로스쿨의 경우는 사법시험을 대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커리큘럼 혹은 과목 변경 및 조정이 쉽지가 않다. 즉, 지식재산 과목의 경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단지 선택 과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식재산에 관련된 과목이 선택과목 중에 하나라는 점은 로스쿨이 취하는 커리큘럼으로서 뚜렷한 특징과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로스쿨의 경우에 지식재산에 관련된 과목을 뚜렷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토호쿠 대학 로스쿨이 지식재산 과목 교수로 특허청에서 파견된 심사관을 활용하는 방안은 특허청과 대학 간의 인적교류의 장을 만들어주고 실무와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지식재산 교육에서도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 히토츠바시츠바시대학

히토츠바시대학은 1875년 상법강습소로 시작하여 1902년에 도쿄상업학교로, 1949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명하

3) 경영법무, 조세/공공정책, 국제경영전략, 금융전략/경영재무의 4개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석사: 2년 이상 재학, 30단위(강의 22단위 이상, 연습 8단위 이상) 이상 취득해야 한다.
박사: 3년 이상 재학, 연습 12단위 이상 취득해야 한다.

였고, 경영, 법, 사회학 분야에서 명문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상학부, 경제학부, 법학부, 사회학부 등 4개 학부와 상학연구과, 경제학연구과, 법학연구과(로스쿨 포함), 사회학연구과, 언어사회연구과, 국제기업전략연구과(MBA), 국제/공공정책 교육과 대학원을 운영하며, 5,554명의 학부생, 1,465명의 대학원생, 513명의 전문직 학위과정생이 재학 중인 규모가 크지 않은 대학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학생 사이의 연대가 깊다.

(1) 히토츠바시대학 지식재산 교육의 연혁 및 특징

히토츠바시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은 1998년 개설된 MBA과정인 국제기업전략연구대학원(ICS)³⁾ 경영법무 과정에서 진행 중이며, 이 경영법무 과정은 ‘경영법무 코스’와 ‘지적재산 전략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졸업시 ‘경영법’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수여된다. 2003월에는 지식재산 창조 사이클의 일익을 짊어지는 고도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지적재산 전략 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MBA과정에 법률 코스를 접목하여 히토츠바시대학의 지적재산전략 강좌 프로그램의 지식재산법 관련 과목은 많은 지식재산법 고유의 강의 이외에 ‘경영정책과 법’, ‘국제 경쟁법’ 등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강의와 ‘현대거래법’, ‘기업 책임법’ 등의 기업 관련법도 개설되고 있다. 석/박사 수료 조건은 정해진 시간과 수업⁴⁾을 채워야 하며, 논문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 히토츠바시대학 지식재산 교수진

ICS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은 전임교수 2명, 조교수 1명, 비상임강사 5명에 의해서 진행된다. 도히 카즈우미 전임교수는 법학박사 출신으로 일본 공업 소유권 법학회 이사장, 저작권법학회 이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전임교수인 아이자와 히데타기는 도쿄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의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야지 카즈후미 조교수는 토호쿠 대학 공대 출신으로 세 명의 교수가 법학, 경영학, 공학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3) 히토츠바시 대학 지식재산 교육 내용

ICS의 지식재산 교육은 기초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성되며, 기초과목은 경영 법무종합문제(지식재산전략)와 지

식재산법 입문으로 구성되고, 전문과목은 필수, 선택필수,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다. 특이점으로는 경영법무종합문제의 경우 전임교수와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공동연구회 방식이며, 수강자의 연구테마 보고와 그에 따른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표 3〉 히토츠바시대 지식재산 과목

구분	과목	
기초과목	경영법무종합문제, 지식재산전략입문	
전문과목	필수	지식재산전략론, 지적성과물보호법
	선택필수	경쟁업법, 국제지식재산법, 라이선스 계약법,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법, 법무특별강의(특허의 취득과 활용)
	선택	현대거래법, 기업책임법, 비즈니스분쟁처리법, 도산관계법, coporate/gorvenance법, M&A 법무, 금융거래와 법, 경쟁정책과 법, 비교경쟁법, 국제경제와 법, 공정거래와 법, 채용관계와 법, 기업과세

지적재산전략론과 지적성과물보호법은 필수과목으로 지식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이론적인 기본을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택필수과목인 기업법, 국제지식재산법, 라이선스 계약법,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법, 법무특별강의(특허의 취득과 활용) 등을 통해 실제 사회에서 지식재산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선택과목인 현대거래법, 기업책임법, 비즈니스분쟁처리법, 도산관계법, corporate/governance법, M&A법무, 금융거래와 법, 경쟁정책과 법, 비교경쟁법, 국제경제와 법, 공정거래와 법, 채용관계와 법, 기업과세 등을 통해 지식재산 활용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4) 히토츠바시대학 지식재산 학생 및 진로

지적재산전략 강좌 프로그램의 정원은 10명으로 약 3~4:1의 경쟁률을 보인다. 변리사, 변호사 등의 법조관계자 및 기업의 지식재산 부서 재직자가 주 대상이며, 선발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5) 히토츠바시대학 지식재산 교육의 시사점

야지 카즈후미 교수에 따르면 ‘히토츠바시대학의 경우는 2003년 지식재산관련 프로그램이 시작됐으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지식재산 육성정책에 부응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경영과정을 기본으

로 지식재산 관련 법무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단순한 지식 재산 인력이 아닌 고도의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경영전략과 법률지식을 겸비하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이론적, 실천적 분석 및 응용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히토츠바시대의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인턴십, 산학연계, 다양한 실무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MBA 과정에 체계적인 지식재산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과 MBA 과정에 지식재산 관련 법률 전임교수 2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경영전략과 법률적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국내 지식재산 교육에 있어 충분히 참고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공계 출신을 대상으로 법률과 경영을 복합적으로 교육시키는 MBA를 수료 후 지식재산 관련 프로그램 수강으로 이어지는 포맷을 통해 이공계 지식과 경영지식, 지식재산 법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한국의 지식재산 교육

특히 3극과 비교해볼 때, 모든 분야에서 지식재산 교육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상위 30위

권 대학의 경우 지식재산 과정을 실시 중인 곳은 7개 학교이며, 지식재산 과목은 총 24개가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과목이 법대에 개설되어 있으며, 지식재산 과정은 법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지식재산 창출교육에서는 4개 대학원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4개 대학 모두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 전부를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파견하는 교육이며, 대학원 전체에서 1강좌밖에 개설되지 않아서 수강 학생수가 50명이 이르고 때로는 80명 이상이 수강하여 실습에 지장을 받는 등 국내의 지식재산 교육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내 교육인적자원부인가 4년제 대학 233개를 통해 국내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개황을 살펴보면 법대 58%, 이과대학 11%, 공과대학 20%, 경영대 2%에 지식재산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이공계 46개 대학 중 37개교가 특허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대는 서울대학교와 KAIST를 법대는 CEIPI와 Queen Mary, 경영대는 옥스퍼드와 임페리얼컬리지의 지식재산 담당교수들과 집중 인터뷰를 하였으나 지면관계상 여기서는 ETH Zurich와 Chalmers, CEIPI, Imperial College의 지식재산교육 내용만을 기술하기로 한다.

가. 서울대

서울대는 민족교육의 기치아래 1946년에 1개의 대학원과 9개의 단과대학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국립종합대학으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인지도를 보이며⁵⁾, 공학(7위)과 자연과학(13위)은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다. 세계 40개국 478개 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강의의 10%를 영어로 진행하여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의 단과대학⁶⁾과 1개의 일반대학원, 6개의 전문대학원을 운영 중이며, 학부생 19,209명, 석사 7,381명, 박사 2,705명 등 총 29,295명(외국인 2,117명)이 재학 중이다.

〈표 4〉 전국대학(학부) 지식재산 관련 교과목 운영현황

구분	법대	이과대	공과대	경영대	지식재산권 특성화학과	
설치대학단과	98	142	152	166	5	
설치 여부	개설대학	57	15	31	4	5
	운영비율	58%	11%	20%	2%	100%
	특허청지원	-	6	31	-	-
설치 형태	개설교과목	126	19	56	5	59
	전공	114	11	18	5	48
	교양	12	8	38	0	11
	특허청지원	-	6	38	-	-
수업 형태	개설교과목	126	19	56	5	59
	On	5	3	3	4	-
	Off	119	10	15	1	59
On/Off 병행	2	6	38	-	-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2007, 전국대학 지식재산관련 교과목 운영현황

5) 2006년 The Times에서 실시한 대학들의 국제적 인지도 평가에서 45위로 평가되었다.

- 상하이자오통대에서 실시한 'Pub' (SCI-E급 저널에 게재된 논문 수로 평가) 기준.

6)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연합전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 84개의 학과(부)가 존재한다.

(1) 서울대 지식재산 교육의 연혁 및 특징

서울대의 지식재산권 교육은 일반대학원 재료공학부에 전공 선택 과목으로 ‘특허와 정보 분석’이 개설되어 있으며, 따로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특허와 정보 분석’은 2006년 1학기부터 개설된 과목으로 전공 선택 과목이지만, 타 전공 학생도 수강이 가능하며, 특허출원 및 정보 분석에 관련된 개략적인 지식을 인지시키고, 특허화하는 과정을 익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발명과 특허, 특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각 내용에 대해 현업 실무자 혹은 특허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공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론과 실습, 프로젝트를 병행하여 수업이 진행된다.

(2) 서울대 지식재산 교수진

지식재산 과목인 ‘특허와 정보 분석’은 홍국선 전임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각 파트별로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서 수업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허제도는 특허청 통신심사팀 서기관인 최훈 강사, 명세서는 특허청 환경화학심사팀 팀장인 홍정표 강사, 특허검색은 아이피플 대표이사인 박용준 강사, 특허분석은 K&S특허법인 변리사인 신운철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서울대 지식재산 교육 내용

2006년 재료공학부에 3학점으로 개설된 ‘무기재료 특강 1’이 2007년에 ‘특허와 정보 분석’으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으며, 담당 교수는 2006, 2007 모두 홍국선 교수이고, 타과 학생들도 수강이 가능하다.

〈표 5〉 서울대 특허와 정보 분석 교과 내용

항목	내용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하여 제작한 교재 사용
수업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개요 특허제도의 이해 특허명세서 작성의 이해 특허명세서 작성의 이해(전자출원) 특허정보조사 이론과 실무 특허정보분석 이론과 실무 연구개발과 특허 전략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 중에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관련분야 전문 강사와의 지속적인 Communication을 통해 시행되며 리뷰 및 평가를 받음

(4) 서울대 지식재산 학생 및 진로

과목의 수강생은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고, 첫 학기는 재료공학부, 둘째 학기에는 기계공학부 학생들만 수강했지만, 셋째 학기에는 화학공학부, 재료공학부, 기계공학부, 경영 및 나머지 학과 학생들이 골고루 수업을 수강하였다.

(5) 서울대 지식재산 교육의 시사점

홍국선 교수는 지식재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과목의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이라는 인식보다는 변리사 공부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정보 분석이 왜 연구에 필요한지를 인식시켜줘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수들과 학생들의 지식재산권 이해를 높여 자신들의 특허를 보장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식이 상식 수준의 문화가 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화된 교육보다는 이해에 중점을 둔 교육이 시급하다.”

나. KAIST

KAIST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1971년에 설립된 연구 중심의 이공계 특수대학원으로 총 31,92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중 6.8%가 교수로, 7.1%가 연구원으로, 23.6%가 산업분야에 진출하여 활동 중이다. 국내 이공계 박사의 20%가 KAIST 출신이며, 공학 및 IT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5개의 단과대로 운영되며 학부생 3,021명, 석사 2,089명, 박사 2,226명이 재학 중이다.

(1) KAIST 지식재산 교육의 연혁 및 특징

2006년 ‘특허와 정보분석’이라는 3학점짜리 전공과목으로 처음 개설되었다. 동 과목은 2007년에 ‘특허 분석과 발명 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석/박사 공동 필수 과정이 되었다.

(2) KAIST 지식재산 교수진

‘특허 분석과 발명 출원’은 조용호 교수의 담당과목이었지만, 연구 안식년으로 현재는 정기훈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현업종사자들도 부분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강사로는 국제 특허 법률사무소의 변리사인 김순웅,

김희곤, 특허심판원 심판관인 김병남, 특허청 정보 통신심사본부 디지털 방송팀, 세계 지식재산연구소속의 Dr. Gurigbal Singh 강사가 참여하고 있다.

(3) KAIST 지식재산 교육 내용

지식재산 교육을 위해 2006년에 ‘특허와 정보 분석’이라는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고, 이후 2007년에 ‘특허 분석과 발명 출원’이라는 석/박사 공통필수 과목이 되었다. 이 과목은 지식재산권의 이해, 특허 제도의 이해, 특허명세서 작성의 이해, 특허 정보 조사 이론과 실무, 특허 정보 분석 이론과 실무, 연구개발과 특허전략, 모의 특허출원 실습의내용을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제에 관련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이론은 강의와 퀴즈를 바탕으로, 실습의 경우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결과를 수업에서 발표 후 토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표 6〉 KAIST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교과 내용

항목	내용
교재	•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하여 제작한 교재 사용
수업주제	• 지식재산권 • 특허제도 및 특허명세서 • 특허정보조사와 분석 • 연구개발과 특허 전략
평가	• Quiz 10%, 프로젝트 I/II/III(30%, 30%, 20%), 출석 및 기타 10%
특이사항	• 주제별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 강사에 의한 수업이 진행됨

(4) KAIST 지식재산 학생 및 진로

전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50명 정원에서 현재 91명으로 증가하였다. 수강생들은 해당 주제별로 교수 혹은 강사로부터 이론적 강의를 듣고, 변리사를 중심으로 사례를 통한 이해와 관련된 팀별 과제를 부여받으며, 마지막으로 정부산하기관 직원과 연동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5) KAIST 지식재산 교육의 시사점

KAIST에서는 여러 강사가 진행하면서 강의의 중복성 및 일관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공과대학원을 위한 전임 교수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 고려대

고려대학교는 ‘교육구국’의 신념으로 설립된 보성전문학교를 시작으로 1946년에 종합대학으로 창립되었다. 세계 18개국 80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학술교류를 맺고 있으며,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과 국내의 기업 임원,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제별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 AACSB⁷⁾인증을 취득했으며, 2007년에는 EQUIS⁸⁾인증을 획득했다. 2개의 캠퍼스를 운영중이며, 19개의 단과대학과 1개의 일반대학원, 3개의 전문대학원, 14개의 특수대학원을 운영 중이고, 총 37,276명이 재학 중이다.

(1) 고려대 지식재산 교육의 연혁 및 특징

고려대학교의 지식재산 교육은 법학전문영역별 특화된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1995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특수대학원인 법무대학원⁹⁾내에 지식재산권법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식재산권법 기본 판례,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가 개설되어 있으며, 전공 선택 과목으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분쟁해결제도, 지식재산권국제조약, 신지식재산권, 상표법 판례연구, 저작권 판례연구, 인터넷과 지식재산권,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29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2) 고려대 지식재산 교수진

7) 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8) The European Quality Improvement System

9) 1995년 교육부 인가 시 특수법무대학원이었으나 2000년 법무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0)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당시 지식재산권법학과와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2007년 2학기부터 고려대 법학과 정교수로 부임하였다.

11) 고려대는 2007년 2학기 기준으로 볼 때, 전임교수 2명과 강사 1명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법학과의 지식재산 교육은 2명의 전임 교수와 2명의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안법영 전임교수와 안효질 전임교수, 이대희 강사¹²⁾는 법학박사로 각각 민법과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하였고, 조광희 강사는 전직 변호사 출신이면서 현 영화사 대표를 맡고 있다.¹¹⁾

(3) 고려대 지식재산 교육 내용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은 법대 교수와 각 전문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강사를 통해 세미나와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판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현실감을 일깨워주고, 최신동향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법대 내에 법학도서관 및 외국법전문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기에 국내 법과 외국의 법 비교를 통한 문제점 발견 등에 용이하다.

〈표 7〉 고려대학교의 법무대학원 교과과정

구분	내용	
과정	• 특수대학원인 법무대학원에 지식재산권법학과 개설	
교과목	전공필수	• 지식재산권법 기본판례,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
	전공선택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분쟁해결제도, 지식재산권국제조약, 신지식재산권, 국제기술도입계약, 상표법 판례연구, 저작권 판례연구, 인터넷과 지식재산권, 상품화권, 컴퓨터와 지식재산권, 특허법·실용신안법 판례연구, 디자인보호법, 지식재산권과 독점규제법, 특허소송, 지식재산권과 법의 충돌, 디지털권리관리, 지식재산권이 이론적 근거, 프라이버시·퍼블리시티 및 인격권의 보호, 엔터테인먼트법, 부정경쟁방지법 특수문제, 미국특허법, 미국저작권법, 유럽특허법, 유럽저작권법, 국제비교상표법, 동아시아국가의 지식재산권법
학생	• full-time student보다는 현직 종사자들이 대다수 임 • 이공계출신이 약 50%	

수업은 강의,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사례, 판례 등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기본 이론 및 지식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 최신동향, 문제점,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 국제조약 등을 학습한다.

(4) 고려대 지식재산 학생 및 진로

지식재산권법학과는 현재 40명 내외가 재학 중이며, 대부분이 판/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공무원, 변리사, 회계사, 관세사 등 전문분야 종사자이다.¹²⁾ 특수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 중 이공계 출신이 반 정도이며,¹³⁾ 모든 학생이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장학제도가 구비되어 있다.¹⁴⁾ 하지만, 실무종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 공유가 아직은 부족한 편이다.

(5) 고려대 지식재산 교육의 시사점

안효질 교수는 한국 지식재산 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현재 특허, 저작권, 상표에 관한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앞으로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저작권, 특허, 상표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기관이 필요하다. 즉, 이론적인 부분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실무에서 나타난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변리사 양성을 위한 기관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변리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일 것이다. 업무 내용으로 볼 때, 변리사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요가 없다면 변리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결국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제공 정보활용지원팀

발명특허 2008. 5

12) 법조계 30%, 변리사 30%, 법무팀 소속 20%, 기타 20%

13) 일반대학원에는 이공계 출신이 전무한 실정이다.

14) 직장인에게 안정적인 학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학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① 일반장학금을 통한 일부 학비 보조, ② 공무원 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감면(공무원, 군인, 교사, 사법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함), ③ 정규학기 이상 등록 대상자에 대한 등록금 감면.